

보 · 도 · 자 · 료



大宇通信, 라이카 쏠대리점 인수

- 라이카의 1백여개 대리점 통합 ...

사무기기 시장 최대 유통망 확보

- 올해 복사기 3만5천대 판매, 전체시장 43% 목표

대우통신(대표 : 柳基範)은 24일 최근 부도가 난 중견 사무기기 전문업체 라이카의 총1백여개 대리점망 전체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우통신은 OA기기 전문 대리점이 기존 80여개에서 180여개로 2배이상 늘어나고 PC,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무선전화기 등 대우통신에서 생산하는 전체품을 취급하고 있는 기존 250여개(한신유통 등)의 유통점을 합쳐 전국에 총430여개의 유통망을 확보, 국내 최대 유통망을 갖게 됨으로써 OA사업을 비롯해 전품목의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다.

대우통신은 이번 라이카 대리점 통합을 계기로 특히 복사기 부분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사기 기술재휴선으로 기존 Minolta社에 이어 라이카의 기술재휴선인 Mira社를 추가함으로써 복사기의 제품 라인-업을 총20여개 모델로 강화하고, 올해 8만여대로 전망되는 복사기 시장의 43%인 3만5천여대를 판매함으로써 신도라코, 코리아제복스 등의 사무기기 전문업체들을 앞질러 이 시장에서 선두로 도약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함께 기존 라이카에서 운영하던 은행용 사무기기 등 특수 사무기기 사업을 추가하고 이 부문에서만 연간 2백억원의 매출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OA사업부문에서 1천2백

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컴퓨터 사업부문의 매출화대도 기대하고 있는 대우통신은 이번 유통망 확대를 계기로 공격적인 영입전략을 펴 컴퓨터, OA부분 등에서 대우통신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우통신이 중견 사무기 전문업체 라이카의 대리점망을 인수하게 된 배경은 복사기를 비롯한 사무기부분 및 컴퓨터부문의 사업 확대를 위해 핵심인 유통망의 확보를 겨냥한 대우통신과 안정적인 사업을 바라보는 기존 라이카의 대리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됨으로써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